강진産 농수특산물 서울 봄나들이

조계사대법회 기간 3일간 초록믿음 직거래 장터
올해 6년째…10대 농식품 등 감성문화 마케팅도

조계사와 함께하는 초록믿음 직거래 행사에 관광객과 신도들의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강진군이 지역 우수 농수특산물의 대도시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해 음력 3월 초하루 서울 조계사 대법회 기간에 맞춰 많은 불자들이 사찰을 방문할 것을 예상하고 조계사의 협조를 얻어 지난 16일부터 3일간 경내에서 강진군 초록믿음 직거래 장터를 열었다.

조계사는 서울 종로 도심 속에 자리 잡은 사찰로 도시민들과 외국인들에게 한국 사찰탐방의 1번지로 불린다.

남도답사 1번지로 알려진 강진군과 조계사의 특별한 만남은 지난 2012년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시작으로 부스 사용료 등 비용 부담 없이 올해 6년 째 매년 2~3차례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행사는 강진농수특산물 유통을 선도하는 직거래사업단이 중심이 되어 12개 생산조직체에서 쌀, 잡곡, 버섯, 김, 미역 등 80여개 품목을 선보였으며, 시중가에 10~20% 할인된 가격에 3일간 판매하여 약 3천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특히 친환경 쌀, 표고버섯, 전통된장 등 농산물과 가공식품, 그리고 각종 수산물들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며 버섯이나 수산물 등 일부품목은 조기 품절되는 사태도 벌어졌다. 전품목이 고르게 판매되는 등 강진의 농수특산물의 우수성을 실감하는 행사였다.

강진군의 연이은 대박 매출 행진의 비결은 직접 맛보고, 만져보는 소비자 만족·감동형 테스트마케팅과 구매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샘플 상품 증정으로 소비자의 호응과 관심을 높이고, 정기적인 행사에 대한 소비자들과의 신뢰형성이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송승언 친환경농업과장은 "지속적인 대도시 직거래 행사로 형성된 소비자들과의 신뢰가 이번 농수특산물 직거래 행사의 성공으로 이어졌다. 앞으로 홍보 및 판매효과가 높은 실익 위주의 행사를 선별적으로 추진하여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초의선사 마시던 해남 두륜산 녹차 직접 만들어 보세요"…한달간 개방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해남군은 녹차체험을 위해 두륜산 도립공원에 조성된 녹차밭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개방한다.

두륜산 녹차밭에서는 직접 찻잎을 따서 도립공원관리사무소 2층에 마련된 체험실에서 녹차를 가공해 가져갈 수 있다.

체험비는 채엽 5,000원, 덖음 5,000원으로 체험실에는 덖음과 유념 등에 필요한 가공시설이 갖춰져 있어 잎녹을 녹차로 만드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체험 참가를 위해서는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채취에 필요한 바구니를 받아, 도립공원 녹차밭에서 잎녹을 채취하면 된다. 만든 차를 시음할 수 있는 음다실도 운영되며, 단체 신청이 있을 경우 다도체험도 가능하다.

체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도립공원 두륜산 자락에 조성된 녹차밭은 2만 8200㎡에 14만 주의 녹차나무가 식재돼있으며, 지난 2006년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두륜산은 우리나라 다문화의 중흥조 초의선사가 40여년간 은거했던 일지암 등이 위치한 한국 차의 성지로 해남군은 지난 2004년부터 녹차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다.

체험문의는 해남군 도립공원팀(061-530-5957)으로 하면 된다.

곡성군, 담배 연기 없는 마을 만들기

간접흡연 없는 환경조성(Smoke-free) 프로그램 운영

곡성군 보건의료원(원장 김영락)은 오산면과 옥과면의 노인지회 회원을 대상으로 금연의 중요성과 간접흡연 위험성을 알리고자 4월부터 9월까지 '간접흡연 없는 환경조성(Smoke-free)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간접흡연의 위험성과 질환에 대해 교육하고, 흡연으로 인한 폐암·후두암에 대한 동영상 시청, 모형을 이용한 간접흡연 체험 등 회원들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교육 효과를 더욱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금연 클리닉에 등록하는 흡연자에게는 보조제인 금연패치, 행동요법 물품인 악력기, 아로마 흡입기, 금연파이프, 캔디, 영양제를 지급한다.

또한, 비흡연자 회원에게도 기초체력측정, 혈압혈당, 영양상담, 치매선별검사 등 내 몸 바로알기 교육과 함께 요가, 레크레이션, 공예교실, 노래교실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락 원장은 "간접흡연은 가족건강은 물론 이웃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간접흡연 없는 환경(Smoke-free)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광휘 기자

담양군, 女농업인 능력 개발교육 수강생 모집

담양군이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여성 농업인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군은 여성농업인의 재능발굴과 경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농촌체험 창업반 및 딸기 카페운영반으로 나눠 이뤄진다.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여성농업인 대상으로 5월 23일부터 7월 23일까지 3개월간 2개 과정 각각 6회에 걸쳐 추진한다.

교육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061-380-3430)로 문의하거나,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담양에는 약 1,200농가에서 딸기를 재배하고 있고, 맛과 영양이 만점인 고품질 딸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농촌체험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농가의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말엔 전라남도 체육대회 열리는 영암으로"

200만 전남도민의 축제인 제57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의 성화가 밝혀지며 22일까지 나흘간의 축제가 시작됐다.

영암군 역사상 최초로 개최된 이번 제57회 전남체전의 개막식이 19일 열린 가운데 22개 종목의 시군별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종목별로 열리는 경기 외에도 2018년 영암 방문의 해를 맞아 영암의 주말에는 볼거리가 풍부하다.

우선 종목별로 영암군의 11개 읍면에서 선수단이 펼치는 경기가 진행된다. 특히, 주 경기장인 공설운동장에서는 육상경기가 펼쳐지며 영암에서 생산된 농축특산물 홍보관과 영암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슈퍼카와 드론 홍보관이 운영된다. 뿐만아니라 도기체험부스, 문화관광사진전 등이 열려 경기 관람객들에게 풍부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최초로 유약을 발라 구워낸 도기인 시유도기의 고장인 영암군에서는 군서면에 위치한 영암도기박물관의 특별전이 열린다. 구림도기특별전 '1200년의 기억, 구림도기의 귀환'과 '한국의 도자산맥'展이 열린다.

또한 영암군 홍보대사인 동강 하정웅 선생의 수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군서면의 영암군립 하정웅미술관에서는 '현대미술거장'展과 '영암 100년의 기록'展이 개최된다.

한편, 영암군에서 열리는 제57회 전라남도 체육대회는 오는 22일까지 개최되며 22일 오후 3시 폐막식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영암=조대호 기자

목포시, 국내관광 선도도시와 실무회의

대구 중구·제천·강진·청송·청도·고령·합천과 협력

목포시가 국내관광 선도도시들과 교류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목포시는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대구 중구, 충북 제천시, 전남 강진군, 경북 청송군?청도군?고령군, 경남 합천군 등 관광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 국내관광 선도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 1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실무회의는 8개 시군구에서 1년 단위로 순회 개최하는 가운데 제천, 강진을 거쳐 올해는 목포가 의장시다.

참석자들은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올해 세부사업계획을 협의하고, 공동홍보물 제작 및 합동 워크숍 등을 논의했다. 이후 목포시 관광안내 설명을 마친 다음 근대역사관을 둘러봤다.

관광교류협의회는 지난 2015년 3월 목포를 비롯해 대구 중구, 제천, 강진, 청송, 청도, 고령, 합천 등 8개 시군구가 협약을 맺고 구성했다.

이에 따라 시군구들은 관광홍보 교류증진을 위해 상호협력, 각종 축제참여, 공동홍보, 지역관광 산업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공동협력 지원사업 추진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관광교류협의회를 통해 수려한 해양경관, 풍부한 역사문화 자산, 맛있는 먹거리 등 목포의 매력과 강점을 전국 각지에 널리 알려 1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 광 주 지 국 안 내

계 림	010-3635-7195	백 운	010-2943-8374
중 앙	010-3365-6200	광 산	010-5604-6533
학 운	010-4166-1810	송 하	010-8620-1925
광 천	010-6612-8599	임 동	010-2656-4543
금 호	010-6636-2775	양 산	010-2646-3205
상 무	010-5359-7406	오 치	010-7532-3313
풍 암	010-6634-5084	북 구	010-4601-2080
화 정	010-8438-3819	동 운	018-611-7751
봉 선	010-9474-0212	용 봉	010-4601-2080
진 월	010-2615-8374	두 암	010-2684-6091

◆ 시 외 안 내

강 진	010-4606-0660	영 암	010-5655-2415
담 양	010-3629-9016	완 도	010-9578-5900
무 안	010-5234-2313	장 성	010-5287-7711
보 성	061-853-9125	장 흥	010-6234-6226
순 천	010-2300-9083	진 도	010-3081-5203
광 양	010-5604-6981	함 평	010-3625-3160
여 수	010-6655-8503	화 순	010-2077-6464
영 광	010-3611-3081	곡 성	010-3615-1088